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정책 전망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천창필 과장)

본 원고는 지난 10월 17일 본 협회가 주관한 ‘제9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이다.

I. 정보통신산업 현황

정보통신 산업의 대내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 둔화, 유가 불안정, 반도체 가격하락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장 불안, 수출경기하락(미국경기침체와 일본엔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2 %대의 성장전망과 실업난 심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현황

국내 산업에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살펴 보면, 2000년 정보통신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23.7% 성장하여 142.3조 달성했으며, 2005년까지 연평균 13.4% 성장으로 241.5조 생산이 전망된다.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정보통신산업생산	88.1	115.0	142.3	146.3	241.5
정보통신서비스	17.9	21.7	29.2	33.7	46.4
정보통신기기	65.6	86.8	105.2	102.1	164.9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7	6.5	7.9	10.5	30.2
증가율(%)	(16.7)	(30.5)	(23.7)	(2.8)	-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GDP비중

IT산업 부가가치액의 GDP내 비중은 96년 8.1%에서 2000년 12.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96년 14.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9년 32.8%, 2000년 50.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1999년	2000년	2005년
IT 산업 부가 가치액	41.2	54.0	66.9	112.4
경상GDP	444.4	482.7	517.1	777.5
비 중	9.3%	11.2%	12.9%	-

* 미국 IT 산업의 GDP비중 : 98년 7.6%, 99년 8.0%, 2000년 8.3%

국내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2000년 IT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512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산업 대비 29.7%에 해당하며, 무역수지는 157억불로 전체산업의 수지흑자보다 39억불 초과했다.

II.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1) 단기적: 민간 IT교육기관의 인력양성 확대

우수 민간 IT 학원을 정보통신부(MIC) IT Academy로 지정 육성하는 한편 국제공인자격과정(IR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위주로 전문교육 실시(소요 교육비 50% 지원(1.8만명))

(2) 중장기적 :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양성 확대

- IT 신규학과 설치 대학에 첨단시설 장비지원

2001~2002년 총 1,000억원 규모이며, 122개 대학, 2001년 12,000명의 IT정원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 등 IT 전문가 겸임·객원교수(100명)를 지원하고, JAVA, HTML 등 IT필수교과과정을 대학에 보급하고, 해외 우수대학 석·박사과정의 유학을 지원(200명)할 예정이다.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1) 2001년도 IT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IT산업을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도 투자규모를 확대(2000년 5,670억 원에서 2001년 1조 43억원(전년대비 77% 증가))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책의 일환으로 원천기초기술개발 투자확대(2005년까지 연구개발비 비중 30%이상)와 광인터넷, 차세대이동통신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05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2) IT 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100명)과 국가간 국제표준 공조체제 구축(한 중 일 국제표준포럼 구성 등 민간 표준활동 지원)을 지원하고 무선인터넷, 전자지불시스템 등 핵심분야 전략 표준화 포럼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

(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

IT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창업공간 지원을 위하여 IT 종합시험센터를 설립하여 선진국 수

준의 시험기술, 시험환경,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 체계를 제공하는 한편 IT SoC 지원센터 운영 및 IT SoC Park 조성을 통해 고가의 설계 및 시험장비 등 개발환경과 창업지원공간 제공과 IT SoC업체의 집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학 IT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전국 28개 대학, 시설비 및 통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조합 결성 및 매분기 투자마트 개설을 통해 하반기 3,400억원(정부1,300억원, 민간2,1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마케팅, 법률, 회계, 특허 등의 전문법인 및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IT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

S/W 성장기반(Habitat)구축을 위하여 지난 9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 S/W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S/W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검경합동 S/W 불법복제 단속활동과 S/W 품질인증제(2001.1) 및 사업자 능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 · 보안 · 컴포넌트 · 리눅스 기반 S/W 등 새로운 수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창작물보호 및 제도 정비를 위하여 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 제정지원 및 DB법 제정을 추진하고, DRM(Digital Right Movement System) 등 디지털 컨텐츠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e-Book, 무선컨텐츠, e-Entertainment 등 신규 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

(1)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 목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북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IT지원센터(iPARK)를 확충 보스턴, 일본, 영국, 중국 상해 등에 신설할 예정이다.

(2) 수출선 다변화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동, 중남미 지역 등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컴덱스 등 주요 해외전시회에 IT기업 참가를 지원한다.

(3) CDMA, PDA, 인터넷 장비 등을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4)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인도 등과의 활발한 인적교류 추진, 재일동포 IT 전문가 양성, 한민족 IT 전문가대회 개최 및 재외한민족 IT 전문가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IT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발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S/W, 디지털컨텐츠 등 첨단분야는 낮은 재생산비용으로 강력한 선점효과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는 IT기술개발과 IT전문인력의 양성 등 IT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을 우리나라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우리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